

김종배 광주시장 후보 확실시

평화당 영입 구체화...정동영 "이번주 결론날 것"

전두환 비서실 행정관 vs 5·18 사형수 대결구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을 주무대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5·18사형수'로 불리는 김종배 전 국회의원의 광주시장 후보 영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9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공천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은 '김 전 의원의 광주시장 후보 영입 추진' 뉴스를 최초로 보도한 광주일보의 지난 8일 보도 직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당 대표가 "당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내야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는 게 어떨지"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의원을 인재영입위원회에 처음 소개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회의의 참가자들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를 상대로 '5·18 사형수'와 '전두환 비서실 행정관'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짜이면서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광주시장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데다 조배숙 대표가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김 전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정배·정동영 의원은 물론 박지원 의원도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김 전 의원의 광주시장 후보 공천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광주시장 공천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 전 의원은 다가오는 5·18에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은 "김 전 의원은 우리 평화당의 정체성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화 성지인 광주시장 후보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최권일 기자 jkpark@



"국회 정상화 협상 이어가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이용섭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진전 없는 드루킹 특검 협상...머나먼 국회 정상화

명칭·추천방식 합의...처리 시기·수사범위는 평행선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드루킹 특검' 협상이 실패한 가운데 그동안 협상의 성과와 대치 쟁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협상에서 드루킹 특검 명칭과 특검 추천방식 등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수사범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커서 당장 협상 타결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전방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특검 명칭과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가까운 명칭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초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큰 틀에서 여야는 특검명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선거' 등을 빼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택하는 방식으로 점점 찾았다. 민주당은 여초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 추천하고 여당이 거부권(비토권)을 갖는 방식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특검법 처리 시기와 특검 수사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여초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제시했다가 14일 이전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이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한국당은 김경수 의원을 명시하고,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교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 지도부에서 수사대상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도지사·국회의원·구청장·군수 후보

김영록 "어린이집 운영·근무환경 개선할 것"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9일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순천선거사무소에서 전남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제안을 수렴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보육료(1인당 22만원)가 5년째 동결돼 도내 800여 사립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평가인증 수당(1~3년 3만원, 3년이상 5만원) 지급과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요청했다.

송갑석 "국민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는 9일 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슬로건은 '나라다운 나라'로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렸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정의로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광주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안 제정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수, 광산구청장 무소속 출마 선언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본부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이었지만 당 기여도 등 모호한 기준 때문에 1차 컷오프를 당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세상 불투명, 당적 이적,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의 이력을 지닌 후보들은 경선까지 치렀는데 이중 어느 하나에도 걸리지 않은 저는 컷오프됐다"면서 "이는 원칙에서 어긋난 결과이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구상한 광산의 비전과 발전계획에 대해 주민께 직접 평가받고자 한다"면서 "행정을 잘 아는 행정가인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천경배 "어르신 건강·복지 개선 최우선"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지난 8일 "신안을 어르신들이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신안군민 4만여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3000여명에 달해 노령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문제가 신안군의 주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도와 버스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버스정류장을 정비하며, 저상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로당을 다양한 복합 여가생활이 가능한 실버생활복지회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영삼 "전남 발전위해 협치·연정 이루겠다"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가 9일 "김대중 정신과 5·18 정신을 양 날개 삼아 새로운 호남, 새로운 100년 도전에 나서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개혁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한 직통의 아들이자 호남의 뉴리더로 우뚝 서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민 후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평화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호남의 큰아들, 평화당을 작은아들께 비유하며 "힘들고 어려운 작은아들께 살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평화당과 민주당은 전남 발전의 양 날개"라며 호남에서 전남발전을 위한 최초의 협치와 연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임택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실시"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9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실시'를 약속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을 계기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노동시장 재진입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태 조사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와 연계한 인증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인력 풀 공유 및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삼호 "광산구 산단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산구에는 5개의 산단과 2300여 개의 기업이 있다. 약 6만여명에 달하는 산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13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경미화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주어 자부심을 갖도록 했고, 직원 복지향상과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노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과 사람, 돈이 물리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일,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본격 세몰이



장일 민주평화당 진도군수 후보는 오는 12일 오후 1시 진도를 남동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도 출신 박지원 전 대표와 윤영일·천정배 의원, 박양수 전 의원을 비롯해 진도지역 평화당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 후보는 "진도군민이 진정한 군수다. 새로운 진도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다짐한 뒤 진도발전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후보는 3선 전남도의원으로 경제관광문화위원장과 진도 출신 첫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최권일·박정옥·최승렬·고흥 주각중 기자 c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 ★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 1. 1차 분양
 - 2. 2차 분양
 - 3. 3차 분양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